

KC NEWSLETTER

VOL. 43

Friday, March 15, 2013

VOL. 43



3월 14일 화이트데이, 4월 14일 블랙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14일의 데이들... 그 중 화이트데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발렌타인 데이의 기원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일본 제과회사 모리나가 제고 처분을 위해 만들었다는 설, 일본 마시멜로 회사의 제안으로 만들었다는 설 등, 실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는 러시아 동쪽에 위치한 하바로프스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도시는 위도가 높은 곳이라 겨울이면 극심한 추위를 겪어내야 했고, 3월 봄이 되어야 비로서 외출이 가능할 정도의 기온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기념하여 3월 중순 쯤, '쿠라다'라는 봄 축하 파티를 연다.

하지만, 3월이라도 우리나라의 꽃샘 추위처럼 혹한의 추위가 오기도 하는데, 극심한 추위가 온 어느 해에 한 청년이 쿠라다가 열리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추이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보드카 한병이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에 쿠라다 기간에 보드카를 주고 받는 풍습이 생기게 된 것이다. 보드카의 병의 투명한 이름을 따서 이 풍습이 화이트데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상업적이지 않은 화이트데이의 유래인 것이다. 3월 14일이면 거리 곳곳에 사랑을 판다. 올 화이트데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동안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따듯하게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FEATURES

04 Project of the Year

05 3월 FMM

0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09 ES Division

- 폐기물도 자원

12 제철사업부 소식

14 발전민수사업부

16 KCCN

17 증권사 탐방

20 KC환경서비스

21 KCMS

22 젊음의 현장

23 칭찬합시다

24 환영해주세요

26 Hot issue

27 봄철 나들이

28 훌쩍 떠나보자

31 문화산책

32 우리회사 근처엔?

34 축하합니다

FROM THE EDITOR

KC 뉴스레터는 매월 KC그린홀딩스와 관계사 (환경엔지니어링 부문, 환경서비스 부문, 친환경설비제조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소식들을 전하기 위하여 발간되는 소식지입니다. 뉴스레터 편집팀은 매월 각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KC의 임직원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별거 아닌 일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며가며 인사를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처럼 전화로, 팩스로 혹은 문서상으로만 만나게 되는 타부서, 타 관계사 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뉴스레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번 호부터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는데, 욕심이 과한 것인지 생각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KC 뉴스레터의 기사는 KC 임직원 모두가 작성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 편집팀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나 좋은 정보가 있는 분들에게서는 언제든지 뉴스레터 편집팀으로 연락 주시며, 기쁨 마음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뉴스레터 편집팀 배상



KC GreenHoldings

지원팀	이상민 팀장
지원팀	황상훈 대리
기획팀	여주희 대리
지원팀	하혜진 사원
EPC	
기술연구소	이창희 사원
해외사업부	김재수 선임
해외사업부	이보람 사원
해외사업부	정호중 사원
제철사업부	권혜진 사원
발전민수사업부	김정원 사원
발전민수사업부	김지선 사원
지식경영팀	이상한 사원

Environmental Service

KCLS	정문택 상무
EcoCycle	서정철 부장
KCHM	최성관 차장
KCHM	박은향 사원
KCES	이정식 과장
KCEC	김유화 사원
CHKOR	조은주 차장

Manufacturing

NWL-P	정행순 차장
CHKOR	조은주 차장
AGLS	홍세라 주임

Renewable Energy

KCEN 이유평 사원

KC코트렐 ‘Project of the Year 2012’ 후보 선정

3개 프로젝트 선정

총 4개 분야로 평가 진행, K-ONE 활용 평가 항목 추가



Project
of the
Year 2012

3월 6일 본사 지하강당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중,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Project of the Year 2012’가 진행되었다. 금번 우수 프로젝트 후보

에는 ESP/AHS/FGD System Upgrading Project(Taiwan), Gheco-one EP, SCR & Ash Handling, 삼천포화력 제1,2호기 전기집진기 1단 증설공사가 선정되었다. 이 날, 해당 프로젝트의 담당자들은 “Project of the Year 2012” 심사기준에 따라 프로젝트의 진행과 결과를 설명하였다. 평가항목은 총 4개 분야로, 신기술 또는 새로운 엔지니어링 기술의 적용, 프로젝트 Risk Management, 실행예산 절감노력, K-ONE 활용 이루어 졌으며, 세부 항목 별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발표에 참석한 전 직원들이 개별 프로젝트의 설명을 들은 후, 해당 항목에 대해 점수를 책정하며 이는 Project of the Year 선정에 중대한 항목으로 활용된다. 금번 선정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점은 새로운 평가항목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자사의 지식경영시스템인 K-ONE의 활용에 대한 평가 항목이 추가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관리를 Project Room을 통해 관리하였는지, Project 업무 수행을 Project Room을 통해서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식경영 초기단계이기때문에 아직 많은 부분을 평가하진 못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한 세부적 평가가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중, 1등은 상패와 함께 상금 2,000,000원, 2등은 상장과 상금 1,000,000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어떤 팀의 프로젝트가 올해의 프로젝트를 수상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한 사내기자



생생한 경험과 함께 배워본 해외 법인의 설립과 성장과정

First Monday Meeting(FMM)

해외 법인은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다

3월 6일 본사 지하강당에서 FMM회의가 진행 되었다. 금번 FMM에서는 특별히 해외사업부 사업 본부장이자 CMO(Chief Marketing Officer, 해외)인 박승원 전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날 발표는 “해외 법인 설립과 과정”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으며, 박승원 전무는 해외 법인 설립 전 상황, 설립 및 초기 운영, 안정 및 성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설립 전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시장이 있는가, 프로젝트를 수주 했는가, 경쟁상태와 가격의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설립 전 파악했던 내용과 현실이 부합하는가, 지속 가능한 시장인가, 생존이 가능한가 등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려 주었다. 안정 및 성장 단계에서 시너지 효과와 꾸준한 인력양성 등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계획을 통해 해외



법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강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KCCN 설립 시작부터 운영에 대한 경험을 활용하여 줄곧 생기있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해외 법인의 설립과 성장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는 해외사업부 이보람 사원의 자료를 인용, 글로벌화 단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였다. 그리고 현재 KC코트렐은 글로벌화 단계에서 수출기업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KC의 모든 임직원들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응원의 말로 이날의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였다.

이상한 사내기자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행복하길 희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의 생존은 수 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승승장구 하던 기업들조차 그 명성이 무색할 만큼 격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해 과거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2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이 무엇이며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지 가늠해 보는 기회로 삼았다면 2013년부터는 우리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될 것 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아닌 이해하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의 기사를 통해 KC그린홀딩스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경영과 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용어를 알고, 개념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의 그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속가능경영이란 무엇인가요?

지속가능경영을 정의하는 이론과 주장은 많지만 그 중 ‘미래에 발생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영활동’이 현실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 우리는 수많은 리스크를 맞이하고 있으며 미래의 것을 예상하고, 그 대응책을 찾아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합니다. 지속가능경영은 이러한 장기적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경제, 환경, 사회분야에 핵심이슈를 선정하고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비하고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조직의 구현을 도모합니다. 경제분야에서 원가절감, 제품혁신을 통한 높은 이익발생은 투자를 유도하고 현금유동성을 확보해 재무적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소소한 활동부터 대체에너지 개발, 전력소모가 적은 제품을 개발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고민을 통해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과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지속적 사업영위를 위한 환경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에너지 가격 폭등, 사업수행 지역 환경파괴 등 미래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속한 사회라는 집단이 안정적이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지역에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에게 대한 지역사회, 기업, 정부조직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현재 또는 미래에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 발생하는 갈등, 이해부족 현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이슈와 활동은 지속가능경영의 일반적이고 쉬운 예의 일부입니다. 조직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작은 실천과제부터 모든 임직원이 개념과 목적의식을 갖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을 의미합니다.





Q 지속가능경영보고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 기준과 평가지표를 참고, 준수해야 하고, 그 정도를 공인기관 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기준은 크게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에 관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수행해 오거나 한번쯤은 고려했던 경영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거나 난해한 이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담아 이해관계자들 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지표이자 성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도구입니다.

Q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어떻게 활용 되나요?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비재무적 성과까지 포함하는 보고서로 회사를 소개하는 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속가능경영의 현재를 평가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의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활동에 대한 의지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년 발간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를 기록하며 앞으로 100년 동안 보고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의 관심과 일독을 권합니다.

앞으로 지속가능경영 사례, 사회적 책임 등 경영전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이슈들을 소개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영팀 성창제



버려지는 폐기물도 이제는 자원

2013년 4월 확장 시행될 고형연료 정책에 대한 설명 이전에, ES Division과 관련이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201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의 70%가 폐기물 에너지일 만큼 폐기물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다. 폐기물 에너지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에너지나 에너지로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여러 공정을 통해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가스 연료, 폐열 등을 생산하는 것이다. 음식쓰레기에서 메탄 것도 하나의 폐기물 에너지이다.

이런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기술인 것이다. 폐기물 에너지의 종류는 성형고체연료(RDF), 폐유 정제유, 플라스틱 열분해 연료유, 폐기물 소각열 등이 있다. 우선 성형고체연료(RDF: Refuse Derived Fuel)는 생활폐기물과 같은 종이, 나무, 플라스틱, 비닐,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분리,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고체연료를 말한다. 그리고 폐유 정제유는 자동차 폐윤활유 등의 폐유를 이온정제법, 열분해 정제법, 감압증류법 등의 공정을 정제하여 얻어낸 재생유이다. 플라스틱 열분해 연료유는 플라스틱, 합성수지, 고무,

타이어 등의 고분자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생산되는 연료유이며, 폐기물 소각열은 가연성 폐기물을 CO 등의 혼합가스 형태로 전환하여 스팀생산 및 복합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 화학 연료 합성이나 시멘트킬른 및 철광석소성로 등의 열원으로 이용된다. RDF 기술의 경우, 유럽과 일본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진다. 유럽은 이미 RDF를 제품화하여 국가 간 거래를 하고 있으며, SRF(Solid Recovered Fuel)으로 명칭하여 유럽 공통 SRF품질규격을 제정 중에 있다. 일본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광역화 정책에 따라 지자체별로 RDF 시설을 가동 중에 있다. 우리나라

라도 2010년 기준으로 67개 업체가 RDF인증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연간 약 15만톤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책은 기존 RDF, RPF, TDF, WCF 등으로 세분화된 고형연료 체계를 SRF(Solid Recovered Fuel)로 통합하는 정책으로 이 정책의 시행으로 향후, 고형연료로 사용 가능한 자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관해서는 법령이 시행된 후, 다음 뉴스레터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볼 예정이다.

이상한 사내기자



A COMPANY PLANNING FOR THE FUTURE ENVIRONMENT



KC Cottr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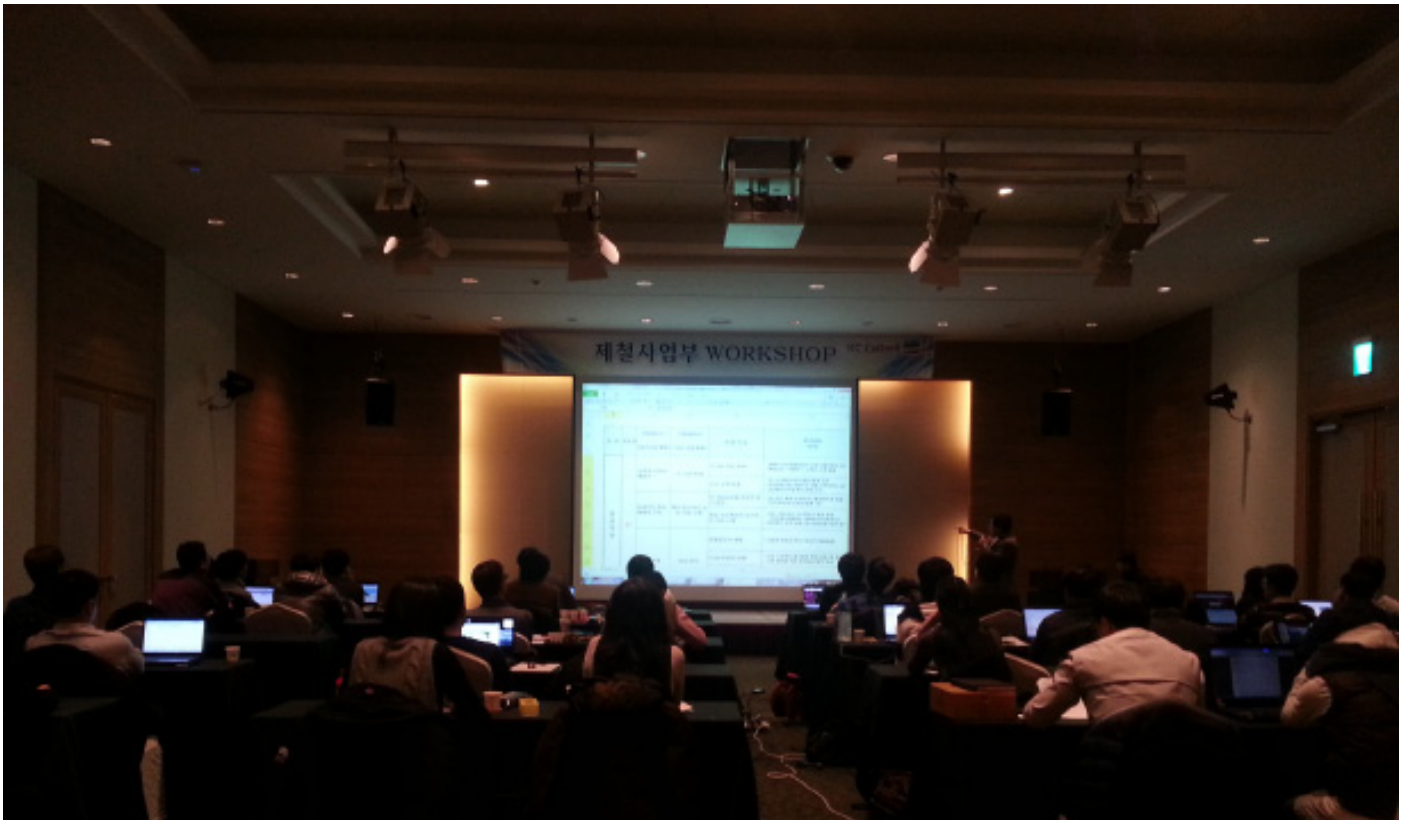


2013 제철 사업부

내일을 위한 멋진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제철사업부의 워크샵이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열린 회의를 통해 제철사업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2013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디오션리조트에서 제철사업부가 새해 첫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샵의 주제는 2013년 역량 강화를 위한 제철사업부의 Plan을 세우고 토론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리조트에 도착하여 점심식사 후, 서동영 총괄부사장의 격려인사가 담긴 영상과 함께 2013

년 제철사업부의 워크샵은 시작되었다. 이어서 제철사업부 영업팀 정순호 상무의 2013년 영업 계획 발표로 제철사업부가 올 한해 이루어야 할 목표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준 팀장의 2012년 프로젝트 실행예산 보고와 주요 프로젝트의 설계 및 문제점을 각 PM이 발표하는 일정이 이어 진행되었다.

그 동안 설계나 관리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들을 하나씩 되짚어가며 앞으로 이러한 trouble이 재발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2조로 나누어 전체토론을 하였다. 7가지 토론 주제 중 가장 중점적이고 의견이 다양했던 주제는 외주 및 설계관리 업무 진행과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제철사업부는 부서 내부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업무를 돕고자 2013년 1월 1일자로 설계 및 제작관리팀을 만들었으나,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 업무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 주요 trouble의 원인분석과 Senior Engineer와 Junior Engineer와의 업무 공백 만회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필요한 기술교육 항목을 나열해보았고, 해외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상 파견 직원의 사전확정과 기술 및 어학, 문화교육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 날 진행된 토론 중, 구성원들이 신명나게 참여한 토론 중의 하나는 바로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타 부서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연차사용 시 선배님들이 어떠한 의문제기 없이, 적극적으로 결재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였다. 이렇게 약 2시간의 알찬 토론으로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맛있는 저녁식사로 첫날은 마무리 되었다. 다음 날 일정은 오전 8시 반부터 설계 및 제작관리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듣고 이를 위해 각 프로젝트의 담당자와 PM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약 1시간가량 광양현장의 이계영소장의 광양 1~4소결 공정 EP 합리화 공사 완료 보고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설계오류로 인해 겪게 되었던 어려움을 사진으로 보고 원인분석을 하며 엔지니어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워크샵의 마지막은 SNNC 임근영 상무의 프로젝트 관리요령에 관한 깊이 있는 강의를 이루어졌다. 작년 하반기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금번 워크샵에 참여하게 된 사내기자 권혜진 사원은 큰 기대를 가지고 워크샵에 참여하였고, 기대만큼 많은 것을 얻는 워크샵이라고 하였다. 또한, “워크샵은 단체사진 찍는 것도 잊을 만큼 일정이 생각보다 타이트하였지만 첫 워크샵에서 얻어가는 보물이 많아서 너무 즐거웠다.”라고 워크샵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금번 워크샵을 통해 더 신명나는 제철사업부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권혜진 사내기자





영흥화력본부 시운전 교육, 뿌듯함이 묻어있는 그 곳에서

추운 날씨마저도 느껴지지
않던 뜨겁던 교육의 현장

3월 5일, 7일, 8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에 시운전 교육일정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영흥화력 5&6 호기 탈황설비로 한창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시운전 교육 보조 담당과 함께 담당했던 기자재 및 전체 현장을 보고 왔다. 3일간 진행된 시운전 교육에 영흥화력 프로젝트 최경배 선임과 황종석대리가 강사로 임했다. 3월 5일과 7일, 양일에는 최경배 선임이 강사로 임했으며 듣는 사람은 시운전처의 신입사원 8명 정도 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신입사원, 과장 등

약 30~40명도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북적임을 느끼게 되었다. 첫 날에는 탈황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과 각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설명하였는데 효과적인 강의 덕분에 듣는 사람들의 몰입도가 높았으며 교육 전후로 질문도 많은 참여율이 높은 강의 시간이었다. 3월 7일에는 탈황설비 PID교육이 있었는데 처음이어서 어렵고 지루할 수 있었지만, 강사들의 재밌는 입담과 중요한 순간에는 절제된 강의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강의가 되었다. 나 또한 PID를 보면서 궁금하였던 사항이 이번 강의 시간에 많이

나와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3월 8일에는 황종석 대리가 PID의 전체적인 복습과 후반부를 담당하였다. 3일 째 되는 교육에서 지치고 따분할 법도 했지만 노련하게 발표를 이어간 덕분에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를 만들어 끝까지 참여도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시운전 교육 이외에 영흥화력 현장에 파견 나와 있는 선임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며, 개인적으로는 영흥현장에 처음 가보았던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 뜻 깊었다. 3월달에 날씨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겨울 동안에도 고생했을 선임들을 보니 겸연쩍은 마음도 들었고 자랑스런 마음도 들었다. 8일 오전에는 영흥화력 5&6 현장을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였다. 도면으로 메일을 보내고 작업했던 것이 실제로 설치되는 모습을 보니 사무실에서 일을 허투로 하면 안되겠다는 다짐도 들었고, 작지만 담당했

던 기자재가 설치된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꽃샘 추위에 몸살기운이 있었지만 3일동안의 교육은 봄날의 꽃내음처럼 유익한 교육덕분에 모든 피로를 훌훌 날려보낼 수 있었다. 이번 출장의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김지선 사내기자





우리도 강남스타일

전세계를 휘어 잡은 강남 스타일, KCCN을 강타하다

즐겁게 맞이하는 2013년, 새 목표를 위한 힘찬 발걸음

2013년 1월 1일 KCCN은 장춘시에서 대략 100km 정도 떨어진 지린시 남서부에 위치한 Shengdequan hotspring에서 201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시작 전, 지난 해의 묵은 때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를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자는 의미로 북경 사무소 2명, 한국에서 1명 총 56명이 다함께 온천욕을 하는 것으로 이 날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본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박승원 전무와 차순근 상무가 제언사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 해준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 Jiang Hongyu가 지난 한해 동안 KCCN의 활동과 2013년의 영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전 직원들은 2013년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의를 다졌다. 이 후, 각 팀별로 2012년 팀 업무에 대해 요약 발표 및 2013년 새해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새로 KCCN과 인연을 맺은 직원들이 한 해동안 느낀 점을 서로 나누면서 1부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2부 저녁 행사에서는 다같이 즐거운 식사와 함

께 직원들이 준비한 공연을 즐겼다. 직원들은 춤과 노래 등 신나는 파티를 위해 많은 공연을 준비하였으며, 공연 후, 경품 추첨행사도 열렸다. 이 날 파티의 백미는 다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춘 것이었다. 풍성한 즐길 거리가 있는 파티를 끝으로 이날 세미나는 마무리되었다.

KCCN Wu Chunling





될 성부른 나무를 찾는 사람들

KC 그린홀딩스는
여전히 저평가 상
태로 투자매력이
높은 기업이다

키움증권

2013년 3월 5일, 3월 11일 등 1 주일에 1회정도, 본사 지하 강당에서 증권사 기업탐방이 열리고 있다. 기업 탐방은 재무제표나 기업공개자료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을 세밀하게 보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미래자산운용, 하나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매년 다양한 증권사에서 KC그린홀딩스 기업 가치 평가를 통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현재 재경팀 장석운 선임이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 IR자료와 재무제표 등에 대한 설명을 핵심으로 증권사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주관하고 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있음에도 탐방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시중에 밝혀진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히 KC그린홀딩스를 알기 위함이다. 그만큼 KC그린홀딩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한 예로, 기업탐방을 통해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기업탐방 보고서를 보면, “KC그린홀딩스는 KC코트렐 이외 자회사의 성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성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및 환경규제 강화 수혜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 평가 상태로 투자매력이 높은 기업이라 판단된다.”라고 KC그린홀딩스를 평가하였다. 향 후, 혹시 엘리베이터나 건물 내에서 기업탐방을 오신 분들을 보더라도 낯설어 하지 말고, 친근한 표정으로 마주하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이상한 사내기자

우리는 지금

기술연구소 진행 프로젝트

오늘 무얼타고 출근 하셨나요?

도시철도 터널 전기집진기 개발

이상한 사내기자



매일 263만명의 출근 길을 책임지는 지하철. 하지만 도시철도 터널 오염도는 역사 오염도 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 수준으로 보고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역사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은 감소하였지만, 터널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터널 내부 운행 중 외기를 이용해 공조를 하는 객차 내 오염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하철 터널에 존재하는 미세 먼지는 열차 운행을 통한 열차 바퀴와 레일 사이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 Fe 발생, 열차 운행 시 진동으로 인해 터널 바닥에 존재하는 자갈 등의 파쇄에 의한 PM 발생 등이 그 원인이다. 이와 같은 터널 내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시도됐지만,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시철도공기질개선연구단(단장 박덕신)'이 '도시철도용 지능형, 에너지 절약형 환경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현재 KC코트렐 기술연구소는 한국기계연구원 정상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도시철도 터널 전기집진기 개발"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 연구는 크게 전기집진기 핵심 유닛 개발과 함께 전기집진기 구성품 개발, 전기집진기 시제품 제작과 성능평가, 전기집진 시스템 현장설치와 운영 평가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체계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집진설비 현장 설치성 조사를 시작으로 방전극과 접지극 등의 전기집진기 핵심 부품 개념 설계와 전기집진기 모듈화 개발 개념 설계 등이 이뤄졌다. 2~3차년도에는 고효율 고전압 펄스 전원장치 개발과 전기집진기 소형화 기술 개발, 전기집진기 시제품 제작이 이어진 4차년도 연구에서는 현장설치 사전조사와 전기집진 시스템 현장 설치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 5차년도에는 전기집진시스템 시제품 문제점 보완과 함께 현장 적용성과 장기운전성 시험, 시제품 최종 기능 보완이 이뤄지게 된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철도 터널의 실내공기질 향상 원천 환경기술 개발과 더불어 도시철도 이용 환경 개선기술과 도시철도 터널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 기술, 방재 시스템 기술 등의 핵심기술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첨단 IT기술과 ET기술을 융합한 친환경 철도기술 개발과 함께 오염물질 센싱과 제어기술 등의 요소기술들과 병행함으로써 실내공기질 관리 장치의 국산화와 기술력 향상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지 보수가 용이한 모듈화된 소형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처리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설치 공간에 제약이 있는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오염물질 저감 장치 설비 설계 기술 확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시철도 터널의 공기질 개선을 통한 이용 승객과 지하 역사 종사자의 건강 증진과 국가적 보건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도시철도 터널 공기질 개선을 통한 역무원, 승무원과 기타 지하시설 근로자의 업무능률과 생산성 향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도시철도 관련 공기청정기술은 일본, 독일, 미국 등의 선진기술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산화가 이뤄질 경우 수입 대체 효과와 더불어 기술 수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KC 환경서비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다

소마그룹 캄보디아 사업개발 추진 소각장견학 시
행 일정 중, 환경서비스의 소각장을 둘러보다



3월 12일 남부발전 및 캄보디아 SOMA그룹
관계자들이 KC 환경서비스(KCES) 소각공
장 견학이 있었다. 10시 30분 도착한 관계자
들은 먼저 KC그린홀딩스 회사소개 동영상을
시청하고, KCES 회사소개 PPT와 KC솔라에
너지 회사소개를 들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소각공장과 폐촉매재제조 공장을 견학하며,
KC환경서비스의 진면모를 보게 되었다. 이
날 방문은 캄보디아 사업개발 추진의 일환
중 하나로, 소마그룹이 환경에 갖는 깊은 관
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상한 사내기자

나날수록 커져가는 지식을 공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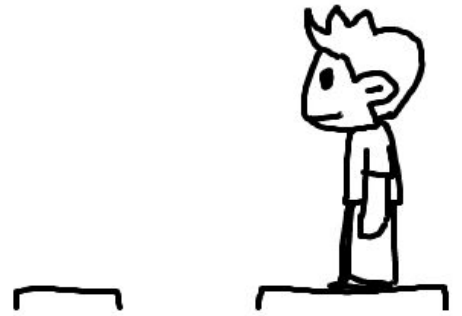
서운초등학교와 함께한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값진 30분을 보내는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매일 아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서운 초등학교에서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학교 시설, 깨끗한 환경, 항상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사 같은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역시도 그들의 순수함을 얻어 가는 것 같았다. 작년 5월 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특별한 인연을 통해서 천사 같은 학생들에게 나는 기본적인 영어를 가르쳤다. 한 해 동안 수업을 하면서 사랑스러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나 역시도 그들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글을 더욱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다짐한다. 이 자리를 빌어 나에게 보석 같은 아이들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나의 플랜트 매니저, 생산팀장과 팀원들, 그리고 PM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KC 모든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루에 잠시만 시간을 투자해 영어를 읽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KC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라도 하루 중 잠시만 시간을 내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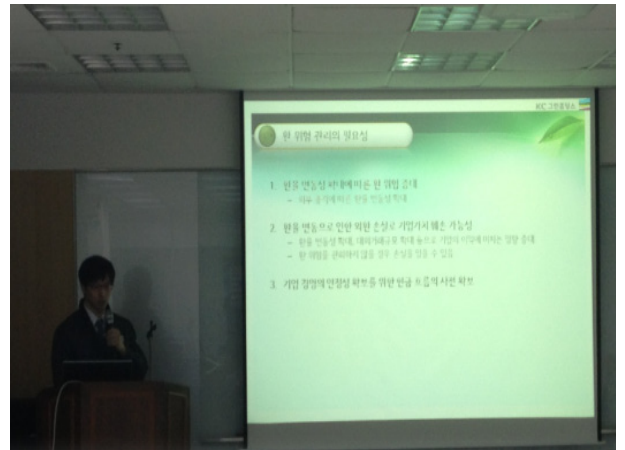
KCMS 마니말란

젊음의 열기, 마지막 열정의 순간을 만나다



지난달 27일 동계 인턴들이 본사 지하 강당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가졌다.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부서에 배치 받아 KC코트렐에 싱싱한 활기를 불어 넣었던 금번 동계 인턴들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듣기 위해 각 부서의 인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2달여의 시간 동안 현업을 함께 경험하며 결정한 주제를 멘토들과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발표를 하였다. 발표 순서에 따라 제일 먼저 제철사업부 국중호 인턴사원은 “이산화탄소 포집 후, 재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재경팀 장시영 인턴사원이 “KC그린홀딩스의 환위험 관리 제안”, 해외사업부 김지연 인턴사원이 “KC Cottrell & GREEN ROOF”, 기획팀 정지인 인턴사원이 “Sustainable KC Greenholdings”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민수사업부 Ulugbek 인턴사원이 “우즈베키스탄 화력발전소 현황 및 접근 전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끝으로 이 날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였다. 인턴들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우수한 발표와 생활을 한 인턴사원들의 앞날에 햇빛 가득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바란다.

이상한 사내기자



칭찬은 KC를 춤추게 한다

To.



안녕하세요,

해외사업부에 정호중입니다.

처음 칭찬합시다라는 주제를 받고 누구를 할지 한참 고민하다, 저는 이봉형 상무님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먼 거리를 출퇴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찍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탁구, 풋살 등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무님의 에너지가 KC코트렐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봉형 상무님을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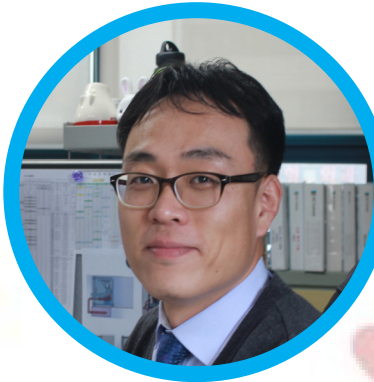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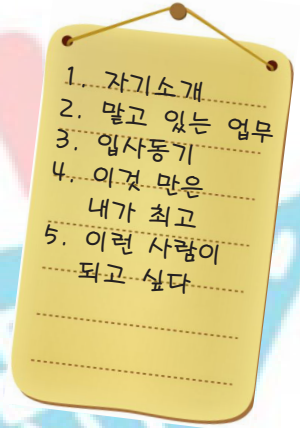
From.



Thanks!!!

WELCOME

KC의 새 가족을 환영해 주세요



김용덕 선임

1.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신체사양 182, 80, 34, 285, AB의 스택 보유
2. FGD 파일럿 플랜트의 설계인자 도출을 위한 개선 프로젝트와 SCR촉매의 메탈폼 응용을 위한 유효성 검증
3. 환경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던 중 KC코트렐을 알게 되었으며, 월간 뉴스레터를 보고 입사 결정
4. 기계적 아이디어의 논리적 전개, 설거이, 민첩한 손놀림과 깔끔한 마무리
5. 현역에서 은퇴 후, 월드비전과 같은 난민구제를 위한 국제NGO 단체의 현지 코디네이터가 되어 생활이 곧 생존인 많은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

박창영 사원

1. 겉보기엔 유부남 같지만 아직 싱싱한 총각,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라이딩을 사랑함, 경청할 수 있는 사원이 되도록 노력 중
2. 지원팀에서 황상훈대리에게 인계중
3. 대한민국 1등 환경기업 KC코트렐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4.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하는 책임감



주선혜 사원

1. 강서구 등촌동에 거주하는 24살에 그림과 노래를 즐기는 여유로운 여자
2. 기술연구소 연구과제비 회계
3. 담당업무가 잘 맞을 것 같고, 젊음의 심장 홍대에 위치한게 너무 좋음
4. 신앙심만은 누구에게 지지 않음
5. 늘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대화하고 싶어지는 사람



“Every father
should remember that one day
his son will follow his example
instead of his advice”



KONE
WORK • SMART



18년 만의 부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시판이 시작되면서 온갖 매스컴에서 과열되게 보도하고 있는 재형저축,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이상한 사내기자

5000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입 가능

3500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가입 가능

300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

4%

금리 연 4% 대 3년 확정

재정적 문제로 1995년 폐지된 이후, 18년 만에 3월6일 각 은행에서 일제히 근로자재산형저축(이하 재형저축)이 시판됐다. 근로자 및 서민과 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자소득세 14%를 없애 주는 내용의 금융상품으로 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재형저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기저축상품은 보통 해지율이 50%이상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금액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재무계획 속에서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요즘 무료로 재무상담을 해 주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재형저축은 2015년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입해야 할 고정금액이 크거나 만기까지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여러 금융사에 분산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며, 자신에게 맞는 재무설계를 통해 가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추천하고 성공한 방법이라고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본인만의 계획을 통해 목돈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형저축의 장단점

장점

납입 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 300만원)까지이며, 최장 10년간 이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얻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니고 인(人)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소득기준에 부합하다면 가입 가능하다.

연봉이 올라도 가입 당시에 조건만 맞았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계속 된다.

단점

장기저축이고 7년을 유지해야 한다. 중도 인출 불가. 중도 해지하면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그대로 뺏어내야 한다. 장기저축상품은 보통 해지율이 50%이상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금액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재무계획 속에서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상품명	재형저축
가입 대상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
세제 혜택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납입 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 300만원)
투자 기간	의무유지기간 7년(만기 7년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1회 가능)
투자 방식	자유 적립식 저축
중도 해지	저축기간 내에 중도해지 시 이자 및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가입 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가입 방법	고객이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전용) 발급 받아서 재형저축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 ※ 소득확인증명서는 관할세무서 또는 인터넷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상품 매수	재형저축 가입 시 최초 계약한 상품을 만기(해지)까지 보유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人)별 합산으로 부부 각자 가입 가능 가입 당시 요건이 충족되면, 월급이 올라도 만기 때 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재형저축계좌 당 재형저축전용펀드 하나만 매수 가능(1계좌 1펀드 적용) 만원부터 가입가능하며 추후 증액 가능(단 위의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

구분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가입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3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 만 18세 이상 세대주 또는 무주택자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 만 18세 이상 개인 국내 거주자
가입 금액	- 분기 300만원(연간 1200만원)	- 분기 300만원(연간 1200만원)	- 연간 1800만원
가입 혜택	-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 납입액의 40%, 최고 300만원 소득공제	- 납입액의 100% 소득공제 혜택 - (최대 연 400만원 한도)
투자 기간	- 최소 7년(최대 10년)	- 최소 7년	- 적립기간 10년이상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현재 판매여부	2013년 3월 출시	신규판매중단	잠정판매중단(신연금저축 계좌 예정)



음악으로 힐링하는 문화공간

'Camerata'

이보람 사내기자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곳은 음악과 따뜻한 커피향이 있는 곳 'Camerata'이다.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는 카메라타는 방송인 황인용 님이 운영하는 카페로 클래식음악감상을 테마로 하는 곳이다. {Camerata}는 이탈리아어로 작은방, 또는 동호인의 모임 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1570~1580년대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바르디가(Bardi家)에 모여, 고대 그리스 연극을 모범으로 새로운 오페라탄생에 기여한 예술가 집단의 이름이기도 하다.

방송인 황인용씨는 1만 5000여장의 LP와 CD를 비롯해 1930년대 진공관앰프등의 오디오 기기를 갖추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수 있도록 꾸며놓은 곳이다.

입장료 성인 10,000원, 초중고생 5,000원(6세이하 어린이 무료)를 내면, 다양한 음료와 머핀이 무한리필 제공되니, 마음껏 드시며 음악감상을 할 수 있다. 또 테이블마다 종이와 연필이 있어 언제든지 신청곡을 써서 내면 황인용씨가 직접 신청곡을 틀어주기도 하니 원하는 음악이 있다면 주저말고 신청해 보자.

문화생활이라는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다. 주말에 가까운 파주로 나들이 가서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현대 디지털 음악이 아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날로그 음악을 들으며, 잠깐이나마 마음의 여유와 추억에 잠겨보는 것은 어떨까? 아! 주말저녁에는 종종 실내악 연주회가 열리기도 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해보고 가는게 ^^

운영시간 a.m11:00 ~ p.m10:00(Everyday) http://blog.naver.com/h_camerata

Tel : 031-957-3369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129



사이다의 청량함 보다 더 상큼하고 깨끗한 자연과 함께 하는 그 곳

The Hilary trail을 들어 보셨나요?

4일안에 75km.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매야 했던 20kg 등산가방안엔 3박4일동안 먹을 음식, 텐트, 침낭, 물, 옷 등을 넣고 나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진흙과 강을 뚫어 비, 바람, 모래를 다맞아가며 산과 바다를 건너고 마침 힐러리 트레일을 완수했다.

인턴사원 김지연



끝날 무렵쯤엔 모기와 사는 것도 익숙해져 있었고, long drop(간이 화장실...?)도 편안하게 사용하고, 강에서 샤워하는 법도 익혔다. 발엔 온통 피멍이 들고, 어깨는 짐 때때 아픈데다 무릎도 곧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모두 한꺼번에 느껴지는,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뉴질랜드에 5불짜리 지폐에 주인공은 Sir Edmund Hilary라는 분이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분은 에버레스트 산 정상에 처음으로 오르신 분이다. 힐러리 경의 이름을 따서 만든 힐러리 트레일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서쪽에 위치한 Waitakere Ranges에 3박4일 트래킹 코스이다. 한국산과는 달리, 뉴질랜드 산은 정말 자연 그대로 둔 곳이 많다. 길도 험하고

산과 산 사이 차가 다니는 길도 ►
가끔 있었다. 20키로 가방을 매고
몇 시간씩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나
오는 생존의 자세



강도 건너고 제대로된 숙소는 없어 캠핑장이라 불리는 풀밭에서 텐트치고 자고 그런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치와 자연이 주는 신비는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강해서 힘들어도 힘든줄 모르고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힐러리 경이 걸었던 그곳을 걸을수 있다는게 신기하면서 벅찼다.

당시 우리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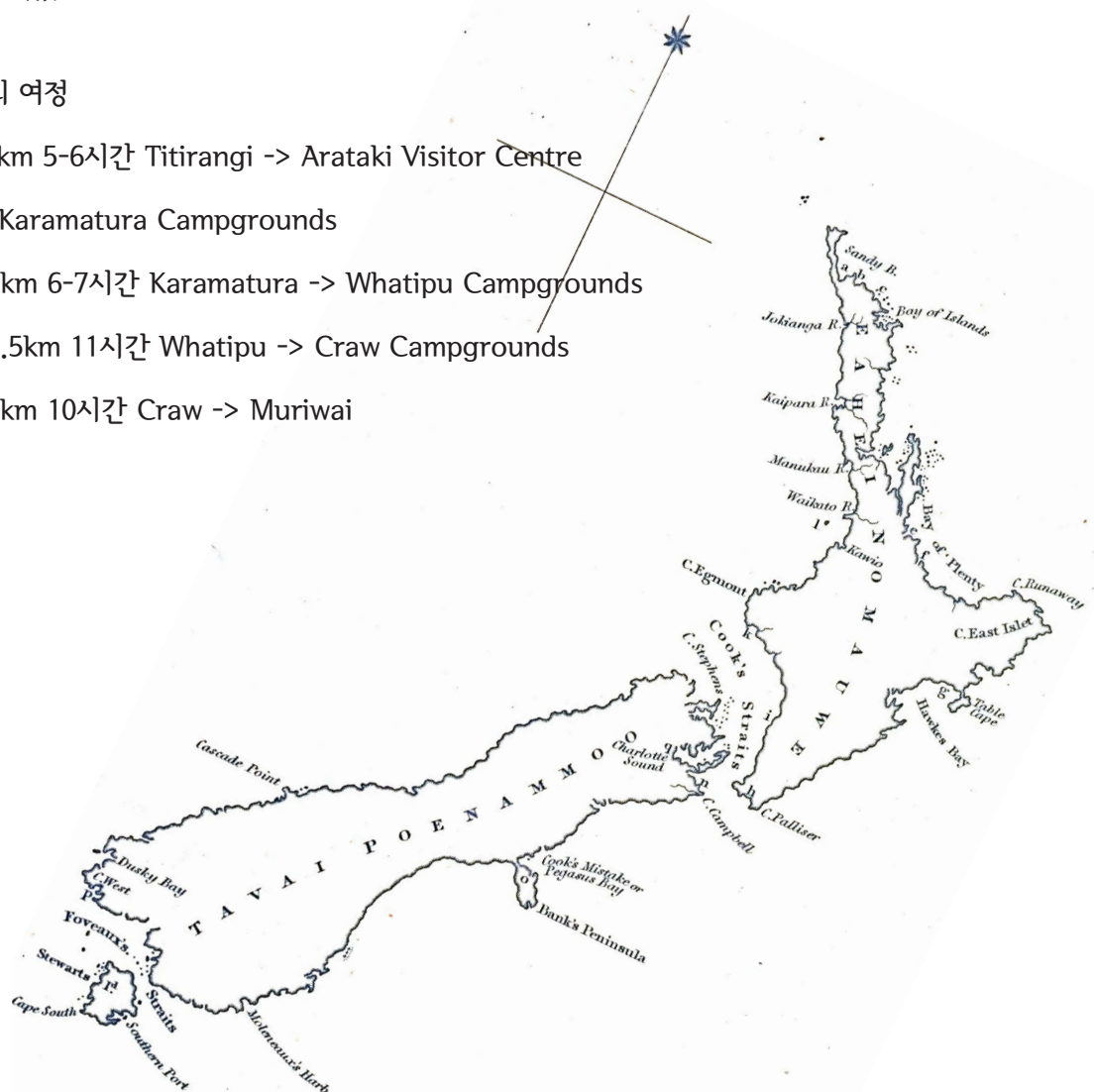
첫날: 16.5km 5-6시간 Titirangi -> Arataki Visitor Centre

-> Karamatura Campgrounds

둘째날: 11km 6-7시간 Karamatura -> Whatipu Campgrounds

셋째날: 20.5km 11시간 Whatipu -> Craw Campgrounds

넷째날: 27km 10시간 Craw -> Muriwai



무척이나 덤덤하고 조용하지만

조용히 일어나 손을 꼭 잡고 돌아가는 노부부의 뒷 모습처럼

사랑을 돌아보게 한다

지원팀 박제이

바람이 몹시 불던 지난 설연휴. 광화문에 있는 시네큐브를 찾았다.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던 극장엔 생각보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영화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Amour. 프랑스어로 “사랑”.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던 노부부 조르주와 안느의 삶. 어느 날 아내인 안느가 마비증상을 일으키면서 평온했던 그들의 삶은 점점 변하게 된다. 자존심 강한 안느는 점차 병마에 잠식되어 가고 병간호를 해주는 남편 조르주 또한 서서히 지쳐간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을 정도로 무척 덤덤하고 조용하게 변화되는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화가 끝났을 때는 몹시 피곤함을 느꼈다.

삶은 늘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조르주와 안느의 삶에 그런 병마가 찾아올 줄 몰랐던 것처럼. 평균수명 80세에 도달한 현재, 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 반백년을... 어쩌면 그 이상을 함께 살아야가 한다. 흔한 혼인서약서의 한 구절처럼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가난할 때나 평생 함께 할 것을 선언합니까?” 행복한 순간보다 감내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아래 그만큼 많은 것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앉았던 자리의 옆에 꽤 나이가 있으신 것 같은 노부부가 있었다. 영화 시작 전, 다정하게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었던 노부부는 영화가 끝난 후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자리를 지키며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꼭 잡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광화문 거리로 나섰다. 돌아가는 길에 그 노부부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며.



*Love... we know the truth,
not only by reason,
but by the heart.*

Newyork을 느끼다 Burger joint

영업시간

11:00 - 23:00 (last order 22:30)

전화번호

02-324-8999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5-51 2층



비운세, 저스틴 비버,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찾았다는 매혹적인 맛을 자랑하는 뉴욕 Parker Meriden 호텔의 burger joint가 드디어 한국, 그 것도 홍대에 들어섰다. 1시간을 넘게 기다려 먹었던 뉴욕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홍대 burger joint를 찾았다. 주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햄버거와 치즈 햄버거 중 하나를 선택하고, 패티의 굵기 정도를 선택한 다음, 토핑을 선택하면 된다. Burger joint의 원칙이자 매력은 바로 스테이크를 이용한 버거! 그래서 버거와 소스는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다고 한다. 햄버거 주문이 끝나면 기호에 따라 음료 혹은 버거 조인트만의 깔끔한 수제맥주와 프렌치프라이를 선택하면 주문 끝! 과연 맛은 어떨까? 뉴욕 본토의 추억과 맛을 가지고 방문한 사람이라면 부족함을 느낄 듯 하다. 하지만, 뉴욕의 맛을 느끼고 좀더 햄버거다운 햄버거의 맛을 보기 위한 방문이라면 만족감을 느낄 것 같다. 맛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 캠핑 가요

이상한 사내기자



영업시간

11:00 - 15:00 17:00 - 02:00

전화번호

02-334-0770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20-1



몇 년 전부터 타오르던 캠핑의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며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중, 최근 ‘글램핑’이 캠핑의 핫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글램핑(Glamping)은 Glamorous와 Camping의 합성어로, 다양한 호화 품목이 포함된 화려한 캠핑을 말한다. 제주신라호텔, 워커히 호텔 등, 많은 곳에서 글램핑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산 “글램핑”처럼 캠핑 테마의 레스토랑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홍대에서 글램핑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글램핑이란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아임캠퍼”는 경기도에 캠핑장을 직접 운영할 정도로 캠핑 사랑이 충만하신 사장님 내외분이 운영하는 캠핑카페이다. 캠핑을 가셔야 먹을 수 있는 바비큐 요리, 휴대용 버너에서 끓여먹는 김치찌개, 시원한 맥주와 깔끔한 소주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아임캠퍼” 평범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곳이다. 자연의 신선한 공기와 조용함을 느낄 순 없지만, 모닥불을 피워 놓고 둘러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상상과 함께 분위기를 즐긴다면 그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팀원들에게 외쳐보자 우리 오늘 캠핑 가요~!

Happy Birthday!

조금 늦었어도 조금 일러도
다함께 축하해 주어요~

3월 1일

최상호2

3월 2일

정순영

최구립

3월 3일

문상훈

이효주

민경만

이기한

3월 5일

장진락

3월 8일

황상훈

3월 15일

이선우

전형일

3월 16일

윤제연

3월 19일

정희정

김현주

3월 20일

권기남

최현규

3월 22일

황인성

3월 23일

최영식

3월 25일

전의순

이강호

설정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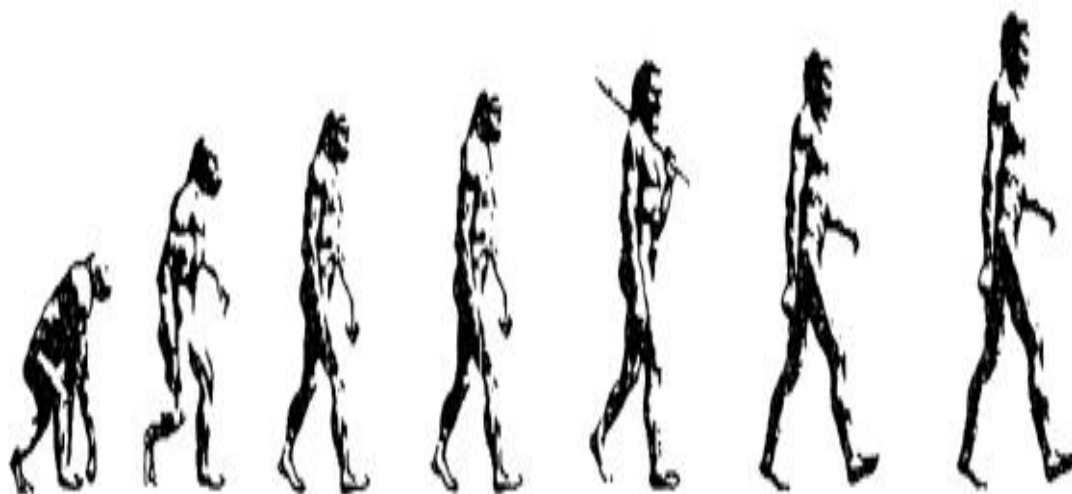
3월 28일

고재영

3월 29일

민태환





www.kc-cottrell.com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